

번뇌를 따르면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다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세 번째 주제법문 '불성을 믿고 정진합시다'

4월 27일 봉은사 법왕루는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릴 만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법문으로 유명한 종범 스님의 법회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날 종범 스님은 특유의 또박또박한 말투로 좌중을 웃기고 또 숙연하게 만들었다.

“중생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언제 갈지 갈 때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모른다.”

종범 스님은 이날 경봉 스님의 명칭구리 법문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명칭구리는 바다 물고기이다. 굵고 동작이 느려서 아무리 위급한 때라도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약하고 시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이른다. 부처님오신날 명칭구리 삶을 벗어나지라는 스님의 법문을 담는다.



언제까지 명칭구리로 살까

인생의 3대 요소와 4대 의혹이 있습니다. 인생의 3대 요소는 <열반경> 제 33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본을 두고 ‘호흡하고, 체온하고, 의식하고 3법이 화합해서 중생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수명으로 중생이 중생으로 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목에서 숨이 떨어지면 더 이상 중생이 아니죠.

또 체온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져 몸이 식으면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안돌아 가면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수(壽), 체온 난(暖), 의식 식(識). 수·난·식이 화합한 것을 중생이라 일컫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네 가지 의혹은 무엇일까요. 통도사 경봉 스님은 인생의 네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명칭구리 법문입니다.

첫째 의혹은 어디서 왔는가. 온 곳에 대한 의혹입니다.

둘째 의혹은 어디로 가는가. 가는 곳에 대한 의혹입니다.

셋째 의혹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혹입니다. 네 번째 의혹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혹입니다.

경봉 스님은 이 것이 인생의 4대 의혹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말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노랫말로 지었습니다.

“온 것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찌 알겠는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노라. 그것 또한 명칭구리. 올 때는 반손으로 왔으면서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라. 그 것 또한 명칭구리. 100년도 못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 않을 것 처

럼 끊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 것 또한 명칭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것 또한 명칭구리.”

즉시아의 여시아의(即是我義 如是我義)

다시 인생의 3대 요소로 돌아가 봅시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숨을 못쉬면 끝입니다. 숨 쉴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몸이 좋은 공덕을 짓고 업적을 지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놓고 순직하면 보상은 받은 어머니가 타고 받은 아버지가 탑니다. 이 몸이 어머니 아버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몸은 어머니 아버지 것인데 정정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 즉시아의(即是我義)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그 것이 곧 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불성이 나인 것입니다.

뒤를 보면 그런데 ‘여시아의(如是我義) 종본기래(從本已來) 상우무량번뇌소복(常爲無量煩惱所覆)’ 이’와 같은 나의 뜻이 근본으로부터 오면서 항상 무

라 불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지만 늘 번뇌에 덮여 있어 불성이 있는 줄 모르고, 있어도 불성인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번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번뇌는 늘 구하는 일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구하고 죽을 때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귀’라는 말로 상징하고 또 경계합니다. 아귀와 같은 번뇌는 끊임없이 구하는데 어떤 이는 재물을, 명예를, 사랑을 구합니다. 여기에 자기 자존도 구합니다. 항상 자신이 높아야 하고 근사해 보여야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 불성입니다. 구할 줄 아는 것 생낼 줄 아는 것 전부가 불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모를 뿐입니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날다 죽는 기러기 되지 말아야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가 날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구하다 죽습니다. 평생을 바닷없이 구해도 못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하다 못구해서 죽는 순간에 통곡합니다. 통곡하지 않고 죽으려면 구하려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하는 마음따라 구해봐도 평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통곡하고 1000년을 살아도 통곡하는 것입니다. 기러기만 높은 조금만 더 날면 하늘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날다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노력을 안하면 죽을때 통곡밖에 없습니다.

크면 우주 만물보다 크고 작으면 티끌보다 작은 게 불성입니다. 먼 것이라 할 수 없고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면 몸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성이 나인데 나를 모르고 재물에 집착하고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하니 고통에 빠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팔만사천 공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덕을 닦는 이유는 몸이 오래 살려고 닦는

채우려는 것 아닌 구하려는 마음이 깨달음 걱정·미움 생기면 왜 그런지 돌이켜보아야

번뇌를 따라가면 구해도 구해도 채워지지 않고 높여도 높여도 높여지지 않습니다. 높이는 것도 끝이 없고 채우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구하는 마음보다 그 정정심, 불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번뇌에서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성이 무엇이나, 불성은 아는 마음입니다. 전부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기 위해 닦는 것입니다. 해학이라고 합니다.

수행은 하기는 하되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는 건 적게 하고 바라는데 많기 때문에 늘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비우면 그 순간 왕이요, 바라는 순간부터 중입니다. 바라는 것을 위해 따라다니며 그것이 안온하다고 한탄합니다.

구하는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고 깨닫기 닦으면 됩니다. 채워서 행복하려고 하면 날다가 죽는 기러기 신세가 됩니다.

구하려는 마음, 돌이키면 바로 지혜

하지만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깨닫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좋은 짓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짓 할 줄도 모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 미움과 같은 생각이 날 때 이 생각이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가. 돌이켜 보는 공부, 이것이 바로 천하의 보배입니다.

중생은 생활 습관이 안돼 있어서 과거 아니면 미래로 돌아옵니다. 과거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손해입니다.

지난 일을 돌이키면 ‘결결’ 아니니 ‘서서’입니다. ‘잘할 걸’ ‘하지말 걸’. ‘그 사람 참 미웠어’ ‘그때는 그래도 재밌었어’ 100년을 해봐도 도움이 안됩니다.

미래는 ‘까까’ 아니니 ‘지지’입니다. ‘될까 안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이리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하지’

오직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모든 것을 지혜로 돌려야지 밖으로 돌리면 ‘서서’ ‘결결’ ‘까까’ ‘지지’ 밖에 안됩니다.

하기는 열심히 하되 바라지는 마십시오. 무상업을 행하되 과업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반조하십시오. 열물을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찾는 일입니다. 기도도 내가 나를 찾는 일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내가 나를 찾는 일입니다. 다른데 돌아가는 마음을 잡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끊임 없이 정진합시다.

정리=노덕환 기자

종범 스님은...

종범 스님은 한영-윤허-홍범 스님으로 이어지는 전통강맥을 이어 오랫동안 후학들을 양성해오고 있다.

1963년 양산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1년 통도사에서 홍범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어 받아 통도사 강연 강사와 강주를 역임했다. 1985년부터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992년에는 중앙승가대 도서관장, 2000년 중앙승가대 제3대 총장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저서로 <조계종사 자료집> 등이 있다.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불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자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길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자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햇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햇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편하는 금강삼고저는 금

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도, 의욕, 보살심, 부동신중계소, 이마음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방사부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세계와 대형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기법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 (인등) 소원성취 및 시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구구 12W (외부용) / 방수구 26E (외부용)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개원기업

귀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귀입문의 (032) 582-6235~6 귀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